



한국 춘란 '경매시대'

aT, 첫 경매... '남산관' 7400만원에 낙찰
매월 1회 정례화... 11월, 입예품 전국대회

춘란(春蘭)도 도매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경매하는 시대가 열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한국춘란의 우수한 유전자원 보존과 시장거래 확대, 새로운 도시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난 24일 한국춘란 첫 정기 경매를 실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국춘란이 공식적으로 도매시장에서 경매되기는 처음이다.

한국춘란은 우리 국토에서 자생하는 난으로서 색상이나 꽃 모양, 잎의 상태 등이 일본이나 중국 난에 비해 탁월해 그동안 난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원예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50품종, 2000여 점이 등록돼 있으며 거래규모는 연간 2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연간 150여 차례 열리는 난 전시회나 재배농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거래규모가 밝혀지지 않는 등 시장 활성화에 애를 먹어 왔다.

aT는 이 점에 착안 새로운 도시농업 창출을 위한 한국춘란의 시범경매 길을 열었으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권 경매제를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일본, 중국 등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이번 경매는 전국 각지에서 출품해 성황을 이뤘다.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한국춘란은 전문평가단의 상품성 평가를 거쳐 경매 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전자경매를 통해 최고가로 응찰한 이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경매됐다.

이날 경매에는 지난 시범 경매 때보다 20% 증가한 약 120분(분)이 출품돼 '남산관'(입업 복분)으로 명명된 난이 최고가 7400만원에 낙찰됐다.

출하자와 중도매인, 구매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 하루 동안 5억원의 상당의 경매실적을 올렸다. aT는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경매에서 1억원 짜리 춘란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는 한국춘란의 정기적인 경매를 위해 주산지인 전남·북, 부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연일 경매 출하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송기복 aT 화훼공판장장은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경매를 정례화하고 오는 11월에는 aT센터에 입예품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춘란의 대중화, 산업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한국춘란 경매에서 참가자들이 경매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aT 제공>

명품시계, 불황은 없다

지난달 수입액 219억... 사상 최대

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 명품 시계 수입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명품 시계(HS코드 9101) 수입액은 2163만4000달러(원화 219억3000만원)로 관세청이 월별 통계 자료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최대였다.

주요 수입국은 스위스,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스위스 제품 수입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1~7월 국가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스위스가 1억265만4000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94%를 차지했으며, 중국 349만9천 달러, 미국

108만4000달러, 프랑스 104만9000달러, 독일 52만2000달러 등이었다.

올들어 7월까지 누적 수입액도 약 1억900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수입액(1억6708만1000달러)을 넘어설 전망이다.

명품 시계 수입액은 2009년 5079만6000달러에서 2010년 7902만7000달러, 2011년 1억2433만7000달러, 2012년 1억4695만9000달러, 2013년 1억6708만1000 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수입액이 늘어난 만큼 국내 명품시계 시장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스켈레톤 플라잉 투르비온 다이아몬드

/연합뉴스

담배 매출 갈수록 '뚝뚝'

편의점 매출 비중 지난해 37%... 우유 등 가공식품 급성장

담뱃값이 오를 경우 편의점 매출 구성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담배가 '호자 상품' 자리를 가공식품에 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한국편의점협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07년 편의점 매출 가운데 44.1%를 차지했던 담배 매출은 그 비중이 계속 떨어져 2012년에는 30%대(39.1%)를 기록했다.

이런 변화는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다.

A편의점은 올해 들어 전체 매출 가운데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37.4%로 지난해(38.0%)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B편의점 역시 35.0%로 작년(35.4%)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이에 비해 가공식품이 편의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7.0%에서 2012년 19.1%로 늘었다.

여기에 우유처럼 매일 배송되는 가공식품 매출 비중(12.5%)을 합치면 지난해 전체 가공식품 매출은 전체의 30%를 넘어선다.

업계에서는 담배 한 갑 가격이 4000~4500원 선으로 높아지면 당장은 가격 인상폭이 줄어든 수요를 상쇄해 매출을 유지해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마트, 전기차 충전소 전지점 확대키로

광주 광산점·순천점 2곳 설치

인프라 충전완료. 이마트가 전기차 시장의 허브(HUB)로 나선다.

이마트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이마트 죽전점에서 환경부와 BMW 코리아, 포스코 ICT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소 정식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앞으로 전점에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를 가동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는 이마트 광산점과 순천점 2곳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마트는 향후 전기차 충전소를 이마트 전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점포도 기획 단계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 3월 BMW 코리아, 포스코 ICT와 함께 민간 부문 최초로 전기차 충전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맺고 본격적인 전기차 충

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BMW 코리아에서 충전기 구입과 설치를 진행하고 포스코 ICT는 자체 충전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운영을 담당하는 형식이다.

전기 충전은 포스코 ICT 충전 멤버십 카드를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있다. BMW i3, 레이, 쏘울, SM3, 닛산 리프, GM 스파크 등 전기차 전차종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기는 시간당 약 7kW를 충전할 수 있으며 BMW i3의 경우 kW당 주행거리가 약 7km인 점을 고려하면 1시간에 약 50km 주행 가능한 양을 충전할 수 있다.

방전상태에서 충전하는 데는 3시간가량이 소요되지만, 전기차 충전기가 이마트 내에 위치해 충전 대기시간 동안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마트 광산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이마트 제공>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일반/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 대출 4억 가, 보 2억에 월 30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전체 올 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 - 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 - 3억5000만원
매매가 - 2억5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